

천연 암벽에 수준급 인공암벽장까지 '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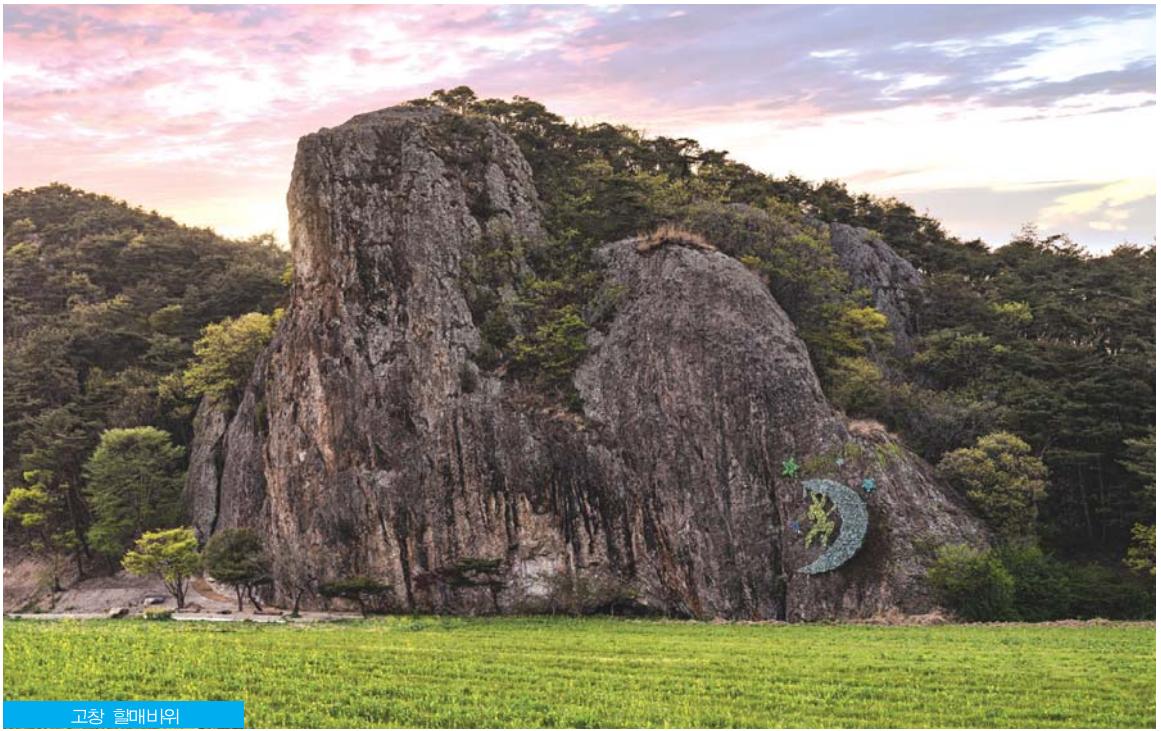
'거미 소녀' 서채현

"오르고 또 올라
파리올림픽 시상대
제일 높을 곳에
오를 거에요"

최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부문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서채현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천재로 불리는 18살 '거미 소녀'를 기워낸 비밀 훈련장이 전북 고창에 있다. 서 선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부터 실내암벽장을 운영중인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녔다.

선운산 투구바위도 여러차례 찾아 수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마침내 최고 난이도 루트를 개척해 올리셨다. 서 선수는 "저는 자연 바위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신체 조건이나 세팅된 난이도에 상관없이 자기가 찾아서 가는 거니까요"라며 "활동했을 때 찌릿한 느낌이 아무래도 자연 바위 쪽이 더 좋아요"라며 웃었다.

2013년 서채현 선수(당시나이 12세)가 선운산 투구바위를 오르고 있다. ➡



클라이밍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고창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다. 특히 선운산 투구바위는 골짜기 양쪽을 바위벽이 바라보며 늘어서 있는 독특한 생김새다. 골짜기 위에서 보면 바위 사이의 공간이 로마 검투사의 투구처럼 생겼다. 그 앞에 사람이 서면 골짜기로 불어와 서늘한 온 몸을 감싼다. 투구바위는 벽 길이가 10~15m의 자연스런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바위의 한 부분이라고 난이도 프리등반의 대명사로) 흐른다.

높이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 역시 대표적인 암벽등반의 명소다. 클라이머들은 바위가 갈라진 틈을 넣고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퀘임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모르는 이들에겐 한없이 위험해 보이지만, 체험하려면 판세상이 펼쳐진다.

특히 고창 할매바위는 수직벽과 오버행을 이루면서도 큼직큼직한 홀드(홀이 둥 등을 수 있는 부분)와 잘 발달된 포켓홀드(홀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클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등반거리도 짧은 편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난이도 역시 초·중급부터 전문가 수

준까지 다양해 자기 수준에 맞는 루트를 등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회장실과 대기실 등 휴게시설이 설치돼 등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찔 찌릿! 복분자와 수박이 맞아주는 고창 인공암벽장 개장 일부

경사면을 자유자제로 오르내리는 디내피한 움직임, 온몸을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 내년 초 고창을 새마을공원 한켠에 멋지게 자리한 고창군실내암벽장이 정식 개장한다. 지역 농특산품인 수박과 복분자 모형을 한 홀드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

이다. 현재 본 건물 공사는 모두 마무리 됐고, 주변 정리와 세부 운영방안을 조율중이다. 고창인공암벽장은 폭32m의 국내최장 리드벽 등을 갖췄다.

고창군체육청소년사업소 양치영 소장은 "고

창은 산, 물, 강, 바다에 걸맞은 자연암벽을 비

롯해 인공암벽장, 신이치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명품 레포츠의 천국이다"며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